

10대 그룹 기후위기 대응 리더십 성적표

2021



GREENPEACE

03 - 05	도입
06 - 08	RE에너지자이즈 캠페인: 10대 그룹, '기후위기 대응 리더십' 현주소를 묻다.
09 - 10	기업 설문조사 실시 대상 선정 및 방법
11 - 21	10대 그룹의 기후 위기 대응 리더십 성적표
22 - 25	10대 그룹 RE정책 인식조사
26 - 27	결론

1. 도입

거스를 수 없는 흐름, 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기후위기 시대, 기업의 역할과 책임은 분명하다. 지난해 한국에서 한 해 동안 사용된 전력량의 절반 이상(55%)은 산업 부문에서 소비되었다.^① 주택용 전력의 비중은 2020년 기준으로 전체 전력의 15%에 불과했다. 다시 말해, 산업 부문이 우리나라 2000만 가구 전체가 사용하는 전력량의 4배에 이르는 전기를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 전력의 3분의 2 가까이(62.4%) 여전히 석탄, 천연가스, 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연소해서 생산하며, 그 과정에서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데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공공전기 및 열 생산을 통해 배출된 온실가스는 약 2억7천만 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37%를 차지했다. 기업 활동이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업의 변화는 필수적이다. 기업 차원의 굵직한 변화 없이 개인의 실천이나 공공 영역의 변화만으로는 전력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란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기업은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을 확대해 나가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는 현재 사용가능한 에너지원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안전하고 경제적인 선택이기 때문이다.^②

변화는 시작되었다. 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전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잡았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같은 IT 기업을 비롯해, 나이키, 샤넬, H&M, 소니 등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앞장서 재생에너지 100% 사용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늦어도 2050년까지는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원에서 조달하겠다는 자발적 글로벌 캠페인 'RE100 이니셔티브'에 가입한 기업은 2021년 6월 30일 현재 317곳을 넘어섰다. 이들 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달성 평균 목표 연도는 2028년이다.^③ 이미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원으로 조달하고 있는 곳도 애플, 구글, MS를 포함해 53곳에 달한다. 그동안 에너지 전환에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던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최근 선진국의 경우 2035년까지 탄소제로 전력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음에 따라 재생에너지 전환이 더 빠른 속도로 공론화하고 있으며 목표 시점도 앞당겨지고 있는 추세다.

① 제90호 (2020년) 한국전력통계
https://home.kepco.co.kr/kepco/KO/ntcob/list.do?boardCd=BRD_000099&menuCd=FN05030103

② 태양광과 풍력으로 대표되는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 터빈을 생산하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두 포함해도 해상풍력은 8gCO₂/kWh, 대형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최저 18gCO₂/kWh 수준으로, 석탄발전(최저 740 gCO₂/kWh)이나 가스복합화력(410 gCO₂/kWh) 대비 월등히 낮다.

③ <https://www.there100.org/re100-members>

RE100은 강제성 없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이니셔티브로 시작됐지만, 오늘날 세계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이끄는 강력한 드라이버로 작용하고 있다. 애플, BMW 등 수많은 부품 협력사를 거느린 글로벌 기업들이 자체 사업장을 넘어 공급망 내 모든 협력사에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때 기업의 친환경적인 경영 방식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는 소비자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용에 소극적이었던 기업들도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 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재생에너지 100% 사용 요구는 권고 차원을 넘어 실제 거래를 좌우하는 요소가 됐다. 지난 2018년, BMW에서는 삼성SDI와 LG화학에 전기차 배터리 납품 조건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SDI의 경우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해외 공장에서 BMW 납품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으로 이 요구를 맞출 수 있었으나, 당시 재생에너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LG화학은 납품이 무산되었다.

글로벌 기업 중에서도 애플의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는 다수의 국내외 주요 기업에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이끄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8년 4월에 자사의 모든 시설이 100% 재생에너지로 가동되고 있다고 발표했던 애플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30년까지 전체 공급망에서도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하겠다고 지난 해 7월 선언했다. 선언 당시 17개국 71개 협력 기업들로부터 애플에 납품하는 제품을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는 발표도 덧붙였다. 반도체 파운드리 업계 세계 1위인 대만의 TSMC를 비롯해 소니, 3M, SK하이닉스 등도 서약에 동참했다. 2021년 현재 애플에 부품을 공급하는 한국 주요 기업은 SK하이닉스, 포스코, 삼성그룹

계열사(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LG그룹 계열사(LG화학,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등 13곳에 달한다. 이들 기업에 납품하는 협력사까지 포함할 경우 그 숫자는 훨씬 더 많다.⁴

글로벌 기업을 필두로 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흐름은, 기후위기의 심각성 및 리스크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했다. 그러나, 탄소 과배출 기업이 더는 살아남기 어려운 세계 경제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 보다 실질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상당 부분을 재생에너지로 조달하여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줄이지 않을 경우, 기후위기 주범으로 비판받을 뿐 아니라 시장 경쟁력까지 잃는 방향으로 세계 경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경제 규모가 세계 1, 2인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탄소국경세'는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탄소국경세란 자국으로 수입되는 제품 중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추가적인 비용을 부과하는 조치로, EU는 오는 7월 14일 관련 법안 초안 공개를 앞두고 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취임과 동시에 강력한 기후대응 의지를 내비치며 미국식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탄소국경세가 도입될 경우,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서 수출 주도로 성장해 온 한국 기업들로서는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생산 과정에서 사용하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높여 전력 사용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낮춰야만 한다.⁵

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세계의 사회, 경제, 정치 지형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오늘날, 기업의 탄소배출량은 이미 그 자체로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화될 것이다.
재생에너지 조달에 소극적인 국내 기업이 그 명분으로
내세웠던 중공업 위주의 산업 구조, 재생에너지 가격,
미비한 구매 제도 등은 더 이상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다.
기업은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과 더불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고 탄소 배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100%로 나아갈 것인가 아닌가를
고민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야심찬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얼마나 더 빨리',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그 이행방안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다.

④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6039637g>

⑤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주요 3개국(美·中·EU)을 중심으로' EY한영 회계법인, 그린피스 (2021)
https://www.greenpeace.org/static/planet4-korea-stateless/15822d05-climate-change-regulation-and-its-impact-on-south-korea-export-kr_20210113.pdf

2. RE에너지이츠 캠페인

10대 그룹, '기후위기 대응 리더십' 현주소를 묻다.

RE100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확대 요구가 가시화됐음에도, 국내 기업의 RE100 가입은 지난해 초까지는 전무했다. 자체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 외의 재생에너지 조달 방법은 전기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는 것인데, 이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업의 요구로 인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국내 기업들은 정부에 재생에너지 구매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고, 그린피스를 포함한 시민사회도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제기했다. 이에 지난해 하반기에 국내 기업의

RE100 이행을 위한 지원 방안이 구체화됐으며, 올해부터 비로소 시행에 들어갔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이행 방안은 모두 다섯 가지다. 우선 **녹색프리미엄(녹색 요금제),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구매, 제3자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 지분 투자 제도** 등이 마련됐고,⁶ 이에 더해 지난 3월에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에 한해 전기 생산자가 소비자와 **전력구매계약(PPA)**을 직접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연내 시행 예정이다.

<표> 국내 RE100 이행수단

이행수단	개요
녹색프리미엄제	→ 한국전력공사가 구입한 재생에너지 전력(RPS, FIT)에 대해 녹색 프리미엄을 부과하여 전기 소비자(산업용, 일반용)가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낙찰 프리미엄의 하한가는 10원/kWh → 녹색 프리미엄 판매 수입은 에너지공단이 재생에너지 산업에 재투자 예정
인증서(REC) 구매	→ 전기소비자가 RPS 의무이행에 활용되지 않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직접 구매 → RE100용 REC 거래 플랫폼 개설 예정
제3자 PPA	→ 한전 중개로 전기 소비자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간 전력구매계약 추진 → 전기 소비자가 전력을 구매하고 발급받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를 RE100 및 온실가스 감축 이행에 활용
지분 투자	→ 전기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일정 지분을 투자하고, 해당 발전사와 제3자 PPA 또는 REC 계약을 별도로 체결
PPA	→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 소비자와의 직접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공급

⁶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1, '21년부터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구매가 가능해진다.'

그린피스는 지난 2015년 국내 주요 IT 기업 7곳을 대상으로 하여 데이터센터의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할 것을 요구했던 캠페인을 시작으로,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촉구하는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또한 기업이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다양한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제도를 도입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해 왔다.

한국이 올해 새로운 RE100 이행방안을 도입한 것에 즈음하여, 그린피스는 국내 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여 기후위기 대응에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RE에너지이츠(REenergize)' 캠페인을 시작한다. 그 시작으로, 올해는 국내 10대 그룹을 대상으로 하여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10대 그룹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을 감안할 때, 이들 그룹 차원의 변화가 시작되어야 국내 기업 전체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확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국내 10대 그룹의 매출 규모는 같은 기간 국내 명목GDP 1,924조 원의 절반을 상회한다(57%). 삼성그룹 한 곳의 매출 규모(333조 원)만 해도 전체 GDP의 17%에 달한다. 이들 그룹의 자체 매출액에 산하 계열사 및 협력업체 매출액까지 더한다면, 주요 10대 그룹이 갖는 실제 영향력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그룹이 최고경영자 차원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다면, 그러한 결정이나 경영 방침은 그룹 계열사를 넘어 협력업체와 경쟁업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따라서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흐름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주요 그룹 및 총수 차원에서의 기후위기 대응 리더십이 중요하다.

또한 국내 10대 그룹은 그 자체로 상당한 전력을 사용함으로써 그만큼 기후위기를 초래한 책임이 있으므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할 의무가 있다. 2020년 한 해 동안 한전이 10대 그룹 총 100개 계열사에 판매한 전력은 우리나라 주택 전체에 판매한 양보다 많았다. 주택용 전력 총구매량이 약 76TWh인 데 비해, 100개 계열사의 전력 구매량은 약 89TWh였다.⁷ 국내 100개 기업이 2,000만 가구가 쓰는 것보다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편, 기후위기의 심각성 및 기업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압박이 이어지면서, 주요 10대 그룹 및 총수들은 대외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및 ESG 경영의 필요성과 역할, 리더십을 강조해 왔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2020년 10월 취임사에서 "최근의 급격한 기후위기를 초래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환경보호의 중요성은 물론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화의 김승연 회장도 올해 초 신년사에서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리더로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탄소제로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환경 경영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기후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독려한 바 있다.

⁷ 2020년 10대 그룹 100개 계열사의 전력 구매량, 국회 김성환 의원실 제공

삼성

“지속가능한 100년을 만들어 가기 위해 환경적,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더욱 힘쓸 것.”

창립 50주년 행사에서
이재용 부회장 발언

“삼성전자는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환경적,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이다 (중략)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 시설에 대한 친환경 투자를 확대할 것.”

삼성전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0
서문,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LG

“ESG 경영 체계 구축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지속가능한 LG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021년 3월 LG그룹 주주총회에서
구광모 회장 발언 중

롯데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등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ESG경쟁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

2020년 11월 롯데정밀화학
울산공장 방문 때
신동빈 회장 발언 중

현대중공업

“ESG를 경영 최우선으로 삼아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기업이 될 것.”

2021년 3월 현대중공업그룹
주주총회에서 권오갑 회장
인사말 중

현대차

“장기적인 로드맵에 따라 자동차 제조, 운영, 폐기 등 전 과정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할 것이며,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이 글로벌 순환경제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2021년 5월 P4G 서울 정상회의
사전행사에서 정의선 회장 발언 중

SK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은 선언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 행동변화로 나아가야 한다.”

2021년 5월 P4G 서울 정상회의
비즈니스포럼에서 최태원 회장
발언 중

포스코

“기후변화 대응은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해결해 나셔야 하는 현재의 이슈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시민 포스코에게 중요한 아젠다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저탄소 사회로 도달하는 방법을 찾는 데 포스코를 포함한 다양한 선도기업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2020년 포스코 기후행동보고서
서문 중, 최정우 회장

10대 총수 말말말



GS

“환경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은 사회와 고객의 요구이며, 특히 기존 사업의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와 함께 신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2021년 1월 GS그룹
허태수 회장 신년사 중

한화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리더로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탄소제로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환경 경영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2021년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신년사 중

농협

“농협이 곧 ESG’라는 인식으로 국민과 지역사회, 환경에 기여하는 금융그룹으로 나아가야”

2021년 4월, 농협그룹지주 손병환
회장, 사회가치 및 녹색금융 협의회
발언 중

3. 기업 설문조사 실시 대상 선정 및 방법

그린피스에서는 주요 10대 그룹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100% 목표 연도(국내 사업장 기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 방안, 기후 대응 관련 정보 공개의 투명성 등을 묻는 설문을 통해 각 그룹 및 총수가 대외적으로 밝힌 기후 대응 의지와 별개로 기업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로 준비가 되어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각 그룹 총수별 기후 대응 리더십에 대해 점수를 매겼다. 이번 캠페인 및 설문조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그린피스는 2020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 자산총액 기준으로 10대 그룹(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포스코, 한화, GS, 현대중공업, 농협)을 선정했으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그룹별로 상위 10개 계열사를 선정하였다. 그룹별 설문조사 대상기업은 다음과 같다.

<표> 2021년 RE에너지이즈 설문조사 대상 기업: 10대 그룹 상위 10개 계열사, 총 100개사

삼성	삼성전자 / 삼성생명보험 / 삼성디스플레이 / 삼성화재해상보험 / 삼성물산 / 삼성에스디아이 / 삼성중공업 / 삼성증권 / 삼성전기 / 삼성에스디에스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 기아자동차 / 현대모비스 / 현대제철 / 현대글로비스 / 현대건설 / 현대위아 / 현대엔지니어링 / 현대트랜시스 / 현대캐피탈
에스케이	에스케이에너지 / 에스케이하이닉스 / 에스케이트레이딩인터내셔널 / 에스케이텔레콤 / 에스케이네트웍스 / 에스케이종합화학 / 에스케이건설 /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 / 에스케이가스 /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엘지	엘지전자 / 엘지화학 / 엘지디스플레이 / 엘지유플러스 / 엘지이노텍 / 엘지생활건강 / 엘지상사 / 엘지씨엔에스 / 하이프라자 / 엘지하우시스
롯데	롯데케미칼 / 롯데쇼핑 / 호텔롯데 / 롯데건설 / 코리아세븐 / 롯데하이마트 / 롯데칠성음료 / 롯데글로벌로지스 / 롯데렌탈 / 롯데푸드
포스코	포스코 / 포스코인터내셔널 / 포스코건설 / 포스코에너지 / 포스코케미칼 / 포스코아이씨티 / 포스코강판 / 에스엔엔씨 / 엔투비 / 포스코플랜텍
한화	한화생명보험 / 한화토탈 / 한화손해보험 / 한화 / 한화솔루션 / 한화건설 / 한화종합화학 / 한화투자증권 / 한화시스템 / 한화디펜스
지에스	지에스칼텍스 / 지에스건설 / 지에스리테일 / 지에스글로벌 / 지에스홈쇼핑 / 지에스이피에스 / 지에스이엔알 / 지에스파워 / 지에스동해전력 / 지에스네오텍
현대중공업	현대오일뱅크 / 현대중공업 / 현대케미칼 / 현대삼호중공업 / 한국조선해양 / 현대미포조선 / 현대코스모 / 현대건설기계 / 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 / 현대헬베이스오일
농협	농협은행 / 엔에이치투자증권 / 농협생명보험 / 농협경제지주 / 농협손해보험 / 농협하나로유통 / 농협사료 / 농협유통 / 남해화학 / 농협금융지주

기업 설문조사 실시 대상 선정 및 방법

설문은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7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됐으며, 해당 1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공문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주요 그룹이 기후위기 및 재생에너지 전환 필요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어떠한 장단기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했다. 그룹별 계열사 응답을 취합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각 그룹 총수의 '기후위기 대응 리더십'을 점수화하였다.

설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부분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 수준 및 내부 준비 정도에 대한 질문으로 1) 사용전력의 100%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 여부, 2) 재생에너지 100% 목표 연도, 3)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 현재 사용중이거나 계획중인 조달 제도, 4) 기후 대응 관련 정보 공개 여부(전력사용량,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 온실가스 배출량 등) 등으로 구성됐다.

두 번째 부분은 재생에너지 전력 조달과 관련한 정부 제도 및 목표 등에 대한 것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현재 정부의 3020 재생에너지 목표에 대한 기업의 입장은 어떤지 등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한국에서 시작하는 RE에너지자이즈 캠페인은 2019년 호주 그린피스에서 시작했던 기업 재생에너지 확대 캠페인의 한국판이다. 호주 그린피스에서는 지난 2019년 호주 내 전력 다소비 기업 54곳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촉구하는 리에너지자이즈(REenergise)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14곳에서 평균 2025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에서 시작하는 RE에너지자이즈 캠페인은

10대 주요 그룹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내 산업 부문의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확대를 견인하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4. 10대 그룹의 기후위기 대응 리더십 성적표

10대 그룹별 성적은 10대 그룹 100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RE100 이행 계획과 목표 연도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차등 점수(100% 이행 계획 없을 경우 0점, 100% 이행 계획이 존재하고 설정한 목표 연도가 2030년의 경우 100점, 2040년 70점, 2050년 50점, 논의중 50점, 미응답 0점)를 부여, 이를 그룹별 합산 평균 계산하여 10점단위 분포로 A+에서 F까지 선정(A+ :90~100, A : 80~89, B+ :70~79, B : 60~69, C+ : 50~59, C : 40~49, D+ : 30~39, D : 20~29, F: 20 미만) 하였다.

그룹	총수명	응답 계열사 수		성적
		100% 이행계획 있는 계열사 수 (전체 응답기업)	100% 목표년도 제시한 계열사 수	
없음!				A B
 SK	최태원	10	10	C ⁺
 SAMSUNG	이재용	10	4	C ⁺
 LG	구광모	7	4	D
 POSCO	최정우	6(9)	5	D
 LOTTE	신동빈	2(6)	1	F
 농협	이성희	1	1	F
 Hanwha	김승연	1	0	F
 HYUNDAI	정의선	미응답		F
 GS	허태수	미응답		F
 현대중공업	권오갑	미응답		F
		37(44)	25(평균 2048년)	

10대 그룹의 기후 위기 대응 리더십 성적표

그룹별 세부 분석 결과

국내 주요 10대 그룹 대부분이 ESG 경영이나 탄소중립 등 기후대응 의지를 대외적으로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설문에는 100개 계열사 중 44곳만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삼성, SK는 전 계열사가 설문에 응답한 데 반해,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GS는 전 계열사가 설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설문에 응답한 기업 44곳 중 37개사만이 향후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7곳인 롯데그룹 4개 계열사(롯데쇼핑, 롯데건설, 롯데하이마트, 롯데푸드) 및 포스코 3개 계열사(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아이씨티, 엔투비)는 향후에도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조달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37개사 중에서도 구체적인 목표 연도를 명시한 곳은 25개사에 그쳤다. EGS 경영, 기후대응 의지를 대외적으로 강조해 왔던 국내 10대 그룹 중에서, 장기적인 달성 목표 연도를 내보일 정도로 이행의지를 갖춘 곳은 25곳에 불과해, 대외적으로 내보이는 이미지와는 달리 실제로는 계획이나 준비가 미비한 곳이 대부분이었다.

10대 그룹의 기후 위기 대응 리더십 성적표

그룹	계열사	100% 이행계획	목표연도	기후관련 정보공개	성적
	SK에너지	○	2050	○	
	SK하이닉스	○	2050	○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	2050	○	
	SK텔레콤	○	2050	○	
	SK네트웍스	○	2050	×	
	SK종합화학	○	2050	○	
	SK건설	○	2050	○	
	SK인천석유화학	○	2050	○	
	SKSK가스	○	2050	○	
	SK브로드밴드	○	2050	×	
	응답기업 수	10	10	8	

이번 설문에서, 재생에너지 100% 달성 목표 연도를 제시한 25개사 중 10개사가 SK그룹 계열사로, 10대 그룹 중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나 이행 의지가 가장 두드러졌다. SK그룹은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를 달성하는 것이 전사 차원의 기조라고 응답했으며, 전체 10개사 중 8곳에서 전력사용량, 재생에너지 전력비중,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기후대응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관리해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전사 2050 재생에너지 100% 달성이라는 목표는 세계 주요 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이행 연도가 평균 2028년인 것과 비교해 20여 년이나 뒤쳐진 수준이지만, 국내 그룹 중에선 상대적으로 높은 기후위기 대응 리더십과 이행 의지를 보여 가장 좋은 점수인 C+를 받았다.

한편, 최근 SK그룹에서 지금의 2050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앞당겨 2030년부터 전사적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을 공식화하면서, 그룹 차원에서의 리더십이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은 지난 6월 22일 경기 이천 SKMS연구소에서 열린 ‘2021 확대경영회의’ 자리에서

“향후 탄소 가격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올라갈 것을 감안하면 넷제로는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경쟁력의 문제”라며 “남들보다 더 빨리 움직이면 우리의 전략적 선택의 폭이 커져 결국에는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일 SK 최고경영자들은 현재의 탄소중립 목표 연도인 2050년보다 앞서 온실가스 순배출을 달성하자는 넷제로 조기 추진을 공동 결의했다.

이번 SK그룹 발표 이후 재생에너지 100% 달성 연도 조정 여부에 대한 그린피스 측 질의에 대해 SK그룹에서는 “최태원 회장의 리더십에 따라 그룹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조기 달성할 것이며, 그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보다 빠르게 늘려야 하는 만큼 100% 달성 연도를 당기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목표 연도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답해, 그룹 리더의 강력한 드라이브 하에 재생에너지 100% 달성 목표 연도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10대 그룹의 기후 위기 대응 리더십 성적표

그룹	계열사	100% 이행계획	목표연도	기후관련 정보공개	성적
	삼성전자	○	×	○	
	삼성생명보험	○	×	○	
	삼성디스플레이	○	2050	×	
	삼성화재해상보험	○	×	○	
	삼성물산	○	2030	○	
	삼성SDI	○	2050	○	
	삼성중공업	○	×	×	
	삼성증권	○	×	○	
	삼성전기	○	×	○	
	삼성SDS	○	2045	○	
응답기업 수	10	4	8		

삼성의 경우 10개 계열사 모두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으나, 구체적인 목표 연도를 제출한 곳은 삼성디스플레이(2050), 삼성물산(2030), 삼성SDI(2050), 삼성SDS(2045)로 4개사에 그쳤다. 삼성전자는 그룹 전체 매출(333.8조원)의 절반 상당(49.2%)을 차지하며, 국내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기업이자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이번 조사에서 목표 연도를 응답하지 않아 그룹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의지에 물음표를 남겼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1) 10개사 모두에서

재생에너지 100% 조달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고 2) 목표 연도를 제시한 기업들의 경우 타 기업에 비해 이른 연도를 제시했으며 3) 10개사 중 8개사에서 기후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관리해나가고 있다는 점(투명성)에서 SK와 더불어 국내 10대 그룹 중에서는 가장 높은 C+에 해당했다.

10대 그룹의 기후 위기 대응 리더십 성적표

그룹	계열사	100% 이행계획	목표연도	기후관련 정보공개	성적
	LG전자	○	2050	○	
	LG화학	○	2050	×	
	LG디스플레이	○	2050	○	
	LG유플러스	○	×	×	
	LG이노텍	○	2030	○	
	LG생활건강	미응답			
	LG상사	미응답			
	LG씨엔에스	○	×	×	
	하이프라자	○	×	×	
	LG하우시스	미응답			
	응답기업 수	7	4	3	

LG그룹의 경우 LG생활건강, LG상사, LG하우시스를 제외한 7개사에서 재생에너지 100% 조달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 중 4개사가 구체적인 목표 연도를 밝혔다. LG이노텍의 경우 2030년까지, LG전자, LG화학, LG디스플레이 3개사에서는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다. LG유플러스, LG씨엔에스, 하이프라자 등에서는 재생에너지 100% 조달할 계획은 있으나 구체적인 연도는 미정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전 계열사 중 7곳에서만 100% 조달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점이나, 그중 4곳에서만 목표 연도를 제시한 것에 더해, 기후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관리하는 곳은 3개사에 그쳤다는 데서, SK와 삼성 그룹의 기후 대응 리더십에 못 미친 D를 받았다.

10대 그룹의 기후 위기 대응 리더십 성적표

그룹	계열사	100% 이행계획	목표연도	기후관련 정보공개	성적
posco	포스코	○	2050	○	D
	포스코인터내셔널	×	×	○	
	포스코건설	○	2050	○	
	포스코에너지	○	2050	×	
	포스코케미칼	○	×	○	
	포스코아이씨티	×	×	×	
	포스코강판	○	2050	○	
	에스엔엔씨	○	2050	×	
	엔투비	×	×	×	
	포스코플랜텍	미응답			
응답기업 수	6	5	5		

포스코의 경우 포스코플랜텍을 제외한 나머지 9개사에서 응답했으며, 5개사(포스코, 포스코건설, 포스코에너지, 포스코강판, 에스엔엔씨)에서는 2050년을 목표로 재생에너지로 100%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아이씨티, 엔투비 등 총 3개사에서는 향후에도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포스코의 경우 철강산업이라는 업종 특성으로 인해, 공정상에서 직접 배출되는(scope1) 온실가스가 전력 사용 과정에서 배출되는(scope2) 온실가스보다 많으며,

따라서 사용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한다고 해도 공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까지 감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철강산업은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 및 탄소 다배출 업종으로서, 각국의 탄소국경세 도입이 현실화되면 업계 전체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술 투자와 더불어 사용전력을 조속히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 포스코 그룹은 LG와 마찬가지로 D에 해당했다.

10대 그룹의 기후 위기 대응 리더십 성적표

그룹	계열사	100% 이행계획	목표연도	기후관련 정보공개	성적	
	롯데케미칼	○	2050	×		
	롯데쇼핑	×	×	×		
	호텔롯데	미응답				
	롯데건설	×	×	×		
	코리아세븐	미응답				
	롯데하이마트	×	×	×		
	롯데칠성음료	○	검토중	×		
	롯데글로벌로지스	미응답				
	롯데렌탈	미응답				
	롯데푸드	×	×	×		
	응답기업 수	2(6)	1	0		

롯데그룹의 경우 전체 10개 계열사 중 호텔롯데, 코리아세븐, 롯데글로벌로지스, 롯데렌탈를 제외한 6개 계열사에서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하였다.

그러나 롯데케미칼과 롯데칠성음료 두 곳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계열사(롯데쇼핑, 롯데건설, 롯데하이마트, 롯데푸드)에서는 장기적으로도 사용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할 의사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결과적으로 롯데 계열사 중 롯데케미칼과 롯데칠성음료 두 곳만이 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설문에 응답한 계열사 중 전력사용량이나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 등의

기후위기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관리해나가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응답 계열사 중 롯데푸드를 제외한 전 계열사에서 추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롯데그룹은 10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 및 목표 연도, 투명성 등 모든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최하위 점수인 F를 받았다.

10대 그룹의 기후 위기 대응 리더십 성적표

그룹	계열사	100% 이행계획	목표연도	기후관련 정보공개	성적
 Hanwha	한화생명보험		미응답		 F
	한화토탈		미응답		
	한화손해보험		미응답		
	한화		미응답		
	한화솔루션	○	검토중	×	
	한화건설		미응답		
	한화종합화학		미응답		
	한화투자증권		미응답		
	한화시스템		미응답		
	한화디펜스		미응답		
	응답기업 수	1	0	0	

한화그룹의 경우 전체 10개 계열사 중 한화솔루션에서만 설문에 응답했다. 한화솔루션은 지난 2020년 1월 한화케미칼과 한화큐셀앤드첨단소재가 합병해 출범한 회사로, 향후 5년간 2조8000억 원을 차세대 태양광 및 그린수소 사업에 투자해 국내외 친환경 에너지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⁸

한편, 한화솔루션을 제외한 나머지 9개 계열사는 설문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특별한 미응답 사유를 밝히지 않아, 그룹 차원에서 현재의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을 사업 확장 기회로 보는 것 이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기업의 책임 및 재생에너지 전력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물음표를 남겼다. 한화 역시 최하점인 F를 받았다.

지난 2월, 한화솔루션의 태양광 사업 파트너 큐셀 부문에서는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으나, 한화솔루션 내 케미컬 부문에서는 별도의 재생에너지 사용 계획을 밝힌 적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설문에도 재생에너지 100% 조달 목표 연도에 대해 검토중이라고만 응답하였다. 또한 큐셀 부문으로 한정해 2050년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선언하긴 했으나, 현재로서 기후대응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투명성 측면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⁸ 중앙일보, '[그린뉴딜] 태양광, 그린수소 사업 주력... 글로벌 친환경에너지 기업 도약', 2021/03/12
<https://news.joins.com/article/24010179>

10대 그룹의 기후 위기 대응 리더십 성적표

그룹	계열사	100% 이행계획	목표연도	기후관련 정보공개	성적
	NH농협은행	○	2040	○	
	NH투자증권		미응답		
	농협생명보험		미응답		
	농협경제지주		미응답		
	농협손해보험		미응답		
	농협하나로유통		미응답		
	농협사료		미응답		
	농협유통		미응답		
	남해화학		미응답		
	농협금융지주		미응답		
응답기업 수	1	1	1		

농협의 경우 10개 계열사 중 농협은행만이 2040년까지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응답하였다. 농협은행은 지난 2월 한국전력에서 시행한 녹색프리미엄 구매제도에 참여하며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조달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추후 녹색프리미엄 외에도 자체발전 시설, REC 거래 등을 활용해 매년 전기사용량의 5%를 재생에너지로 추가 전환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농협은행을 제외한 계열사들에서는 조사를 위한 소통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함이 드러났으며, 설문에 참여하기를 거부하였다. 현재 농협금융지주에서는 6월 한 달간 ‘탄소저감’ 활동을 집중 전개하고 임직원의 탄소중립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해 ‘ESG 애쓰자’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부가 주관하는 ‘탄소포인트제’에 임직원 동참을 유도하고, 임직원이 개별

가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홍보할 것이며, 농협중앙회 전 계열사 차원에서는 ‘잔반 안 남기기’ 등의 실천을 독려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⁹

그러나 기업의 운영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대한 고려 없이, 탄소저감을 임직원의 개인적인 실천 차원으로만 환원시키는 것은 그 효과가 미미할 뿐더러, 정부의 탄소중립 기조나 전 사회적인 ESG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보에 그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농협 역시 최하점인 F를 받았다.

⁹ 뉴시스, 농협그룹, 사회가치, 녹색금융 캠페인 ‘ESG 애쓰자’ 실시, 2021/04/07, <https://www.news1.kr/articles/?4266270>

10대 그룹의 기후 위기 대응 리더십 성적표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GS그룹: 전사 미응답

한편,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GS 그룹에서는 전 계열사가 설문에 불참했으며, 일부 계열사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설문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전반적으로 내부에서 탄소중립이나 RE100 이행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나 구체적인 답변을 하거나 외부에 공개하기 어려운 단계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그간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ESG 경영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어 각 그룹 및 총수 차원에서 기후 대응 및 ESG 중요성을 강조했던 데 반해, 내부적으로 사회와 소통할 만큼의 목표나 이행 계획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3개 그룹 모두 평가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최하점인 F를 받았다.

<표> 그룹 계열사 별 미응답 사유

그룹	계열사	미응답 사유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현재 탄소중립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검토사항으로 설문에 응답할 수 없음
	기아자동차	중장기 탄소중립 전략 수립을 위한 검토단계로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이 없음. 현 시점에 설문에 응답하기 어려움
	현대모비스	RE100 대응 등 검토하고 있으나 완료되지 않아 설문에 대응하기가 제한적인 수준임
	현대제철	전력의존도가 높아 자체노력 외 종합적인 검토와 대응이 필요함. 상세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님
	현대글로벌비스	RE100관련 참여 가능성을 유관기관에 타진했으나, 전력사용량이 RE100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산업적 한계가 존재함.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대응을 논의하고 있으나 설문에 응하기 어려움
	현대건설	RE100 이행을 검토하였으나, RE100위원회에서 건설업은 현 시점에서 RE100 가입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아 가입이 불가능한 업종임. RE100관련 설문에 응답하기 어려우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및 CDP평가 등을 통해 환경경영을 점검하겠음
	현대위아	RE100 가입 등 탄소중립 전략 방향을 내부 검토중인 상황으로 설문에 응답하기 어려움
	현대엔지니어링	화석연료 관련 사업으로 인해 RE100위원회가 정의하는 가입대상에서 배제. 2050 선언 등 기후대응 이슈에 공감하며 논의하고 있음. RE100관련 설문에 응답하기 어려움
	현대트랜시스	2050 탄소중립에 공감하나 내부적으로 탄소중립 및 RE100에 대한 방안을 검토중으로 설문에 응답할 수 없음
현대캐피탈	제조업이 아닌 금융사로 RE100 기준 설문조사에 응하기 어려움. 녹색채권발행 등 사업내용을 제공하도록 함 (19-20년도 채권을 통한 감축효과 제시)	
GS	GS칼텍스	내부 검토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기 어려움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현재 그룹 재생에너지 관련하여 명확히 말할 수 없는 단계

그룹	계열사	100% 이행계획	목표연도	기후관련 정보공개	성적
 HYUNDAI	현대자동차	미응답			F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현대글로벌비스				
	현대건설				
	현대위아				
	현대엔지니어링				
	현대트랜시스				
	현대캐피탈				
	응답기업 수				

그룹	계열사	100% 이행계획	목표연도	기후관련 정보공개	성적
 GS	GS칼텍스	미응답			F
	GS건설				
	GS리테일				
	GS글로벌				
	GS홈쇼핑				
	GS이피에스				
	GS이앤알				
	GS파워				
	GS동해전력				
	GS네오텍				
	응답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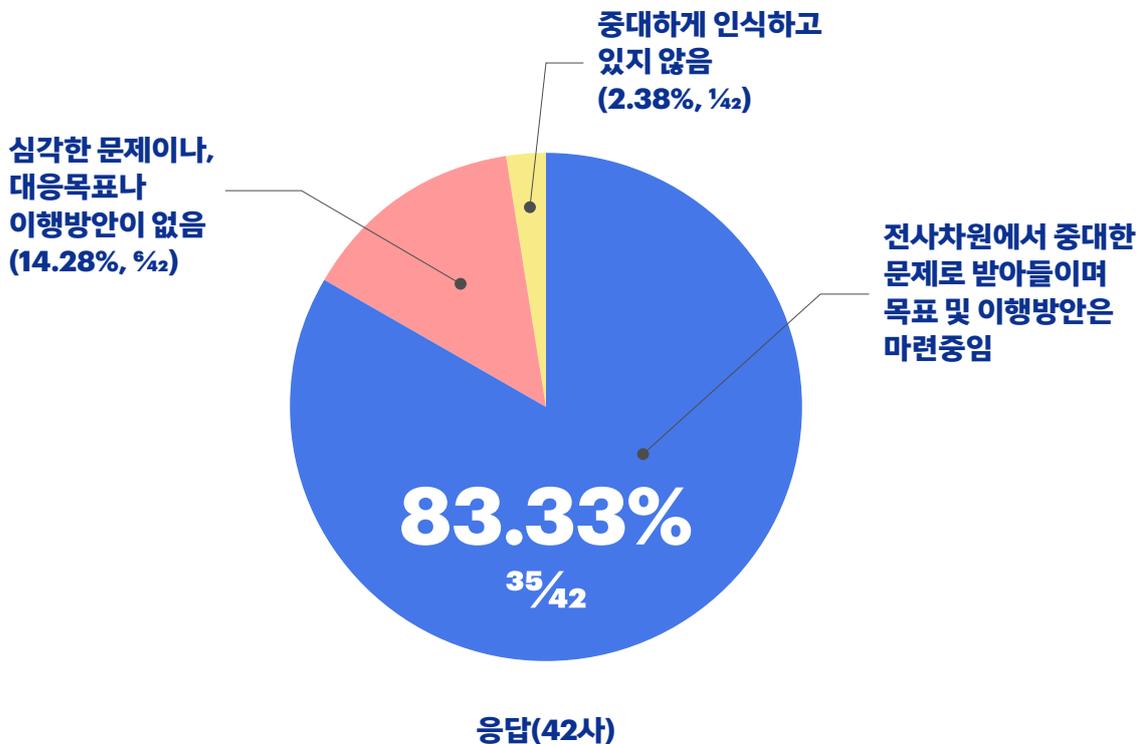
그룹	계열사	100% 이행계획	목표연도	기후관련 정보공개	성적
 현대중공업	현대오일뱅크	미응답			F
	현대중공업				
	현대케미칼				
	현대삼호중공업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현대코스모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				
	현대헬베이스오일				
	응답기업 수				

5. 10대 그룹 RE정책 인식조사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있어 그룹 차원의 기후 대응 이행 전략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다. 바로 재생에너지 전력 조달을 위한 전력시장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충분한지 여부이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올해 부터 기존의 자가 발전 설비 구축 외에 녹색프리미엄(녹색 요금제),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구매, 제3자 PPA, 지분 투자, 직접 PPA 등을 통해 기업을 비롯한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를 특정해서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캠페인에서는 주요 기업들이 기후변화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는지, 또 이제 막 시행된 RE100 이행수단과 정부의 중단기 재생에너지 목표 수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정부 정책에 대해 논평하는 데 대한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설문 시 응답 기업의 익명을 보장하였고 결과 집계에서는 전체를 취합한 수치만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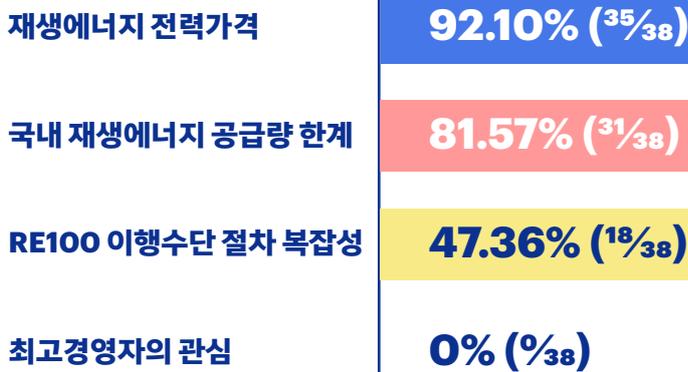
국내 10대 그룹 기후변화 인식 수준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노력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 기업 42곳 중 35개사는 '전사 차원에서 중대한 문제로 받아들이며 목표 및 이행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실제 목표와 이행 계획을 갖춘 곳은 25곳에 그쳐,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사이에 간극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RE100 이행수단 도입의 장애물

응답수(38개사)



올해 새롭게 도입된 RE100 이행수단을 활용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기업 38곳 중 35개사는 재생에너지 전력가격을, 31개사는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량 한계를 주요 장애요인으로 꼽았다(복수응답).

2020년 기준으로 기업이 한전에서 구매하는 산업용 평균 전기요금은 107.35원/kWh¹⁰로, 2020년 하반기 재생에너지 발전 평균단가(143.68원/kWh)¹¹가 더 높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에선 글로벌 바이어나 소비자의 강력한 압박 없이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가 자발적으로 확대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산업용 평균 전기요금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 즉 석탄발전 등 기존 에너지원 사용으로 인한 환경비용이 탄소국경세를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국가적 비용으로 현실화할 예정인 반면, 재생에너지 생산비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설비용량이 빠르게 증가하며 평균단가를 비롯한 경제성이 매년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평균단가는 2017년 184,598원, 2018년 173,986원, 2019년 159,269원, 2020년 143,682원으로 계속 떨어져왔다.¹²

국제 에너지컨설팅사 우드매킨지는 한국이 이르면 올해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 전통에너지 발전과 재생에너지 발전의 균등화발전비용이 같아지는 시점)를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기도 했다.¹³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온실가스 및 환경 비용 증가가 반영되도록 산업용 전기요금 합리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며, 전력시장과 관련 제도를 잘 설계해야 한다. 이번 PPA 법안 통과로 연내에 한전을 통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안 시행 전에 여러 세부 규정을 정비할 필요도 있다.

RE100 이행수단 활용의 장애로 두 번째로 많은 지적을 받은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량의 한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20년 국내 태양광과 풍력으로 생산된 전력량은

¹⁰ 제90호 (2020년) 한국전력통계

¹¹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2020년 하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결과

https://www.knrec.or.kr/customer/notice_read.aspx?no=1666

¹²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결과(2017~2020년 하반기)

¹³ https://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971987.html

10대 그룹 RE정책 인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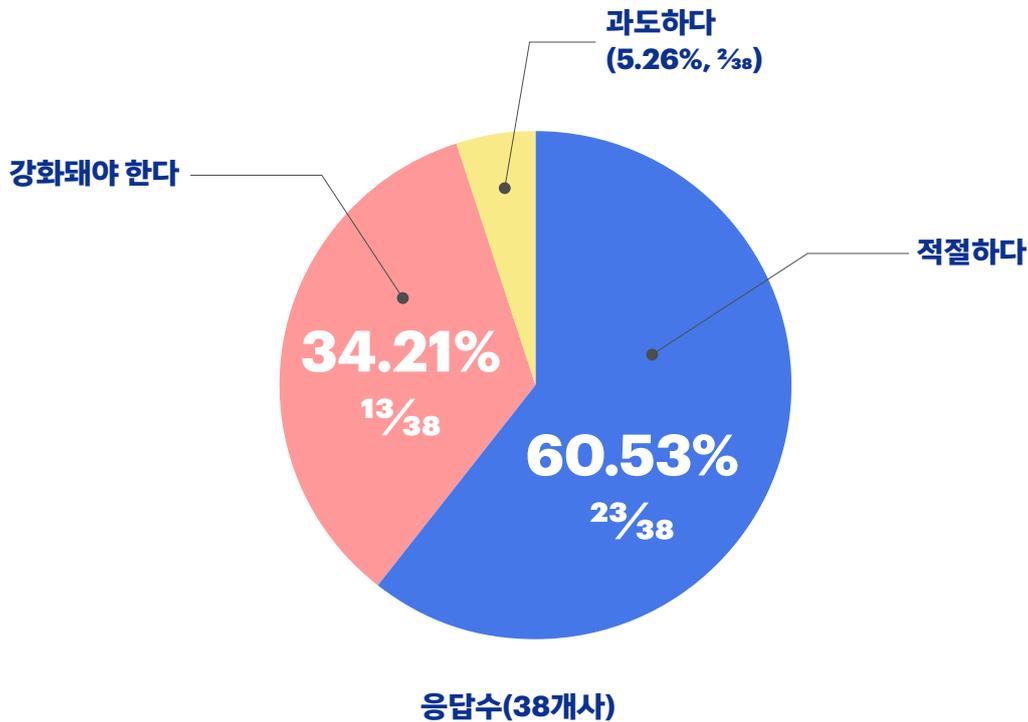
20TWh¹⁴로 국내 전체 발전량 552TWh의 3.6%에 불과한 수준이다. 전체 발전량과 산업용 전력 소비량이 변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늘리더라도 110TWh에 불과해,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전력량(279TWh)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즉, 기업들이 2030년을 목표로 야심차게 RE100을 추진하더라도 재생에너지 전기가 모자라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대규모 전기 수요자인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확대에 나선다면 이는 더 많은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누적 설치량이 늘어나고 내수시장의 규모가 커지면 국내에서도 해외에서와 같이 학습곡선에 의해 재생에너지 기술과 경제성이 향상될 것이고, 이는 다시 더 빠르고 더 큰 규모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끌게 될 것이다.

그외에 RE100 이행의 장애로 RE100 이행수단 절차 복잡성, 지역주민의 반대로 인한 설비 투자 어려움, 비제조사로서의 RE100 한계, 자가발전 설비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 어려움 등을 지적하였다.

정부 RE3020 목표의 적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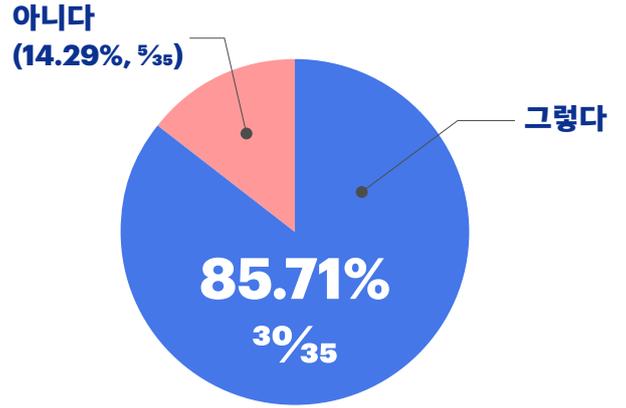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0%로 한다는 정부의 'RE3020'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강화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34%, 적절하다는 응답은 61%인 반면, 과도하다는 의견은 5%에 그쳤다. 기업들이 정부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에 공감하는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¹⁴ 21년도 한국전력통계(제90호) 발전원별 에너지원별 발전량(2020) 풍력 및 태양광 발전량 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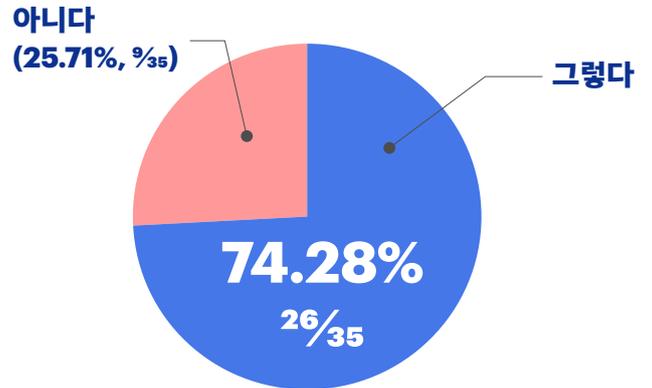
정부 목표 상향 및 제도/지원 강화 필요성

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조달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관련 제도 및 지원이 강화되고 공급 목표가 상향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응답 기업의 대다수인 86% 기업들이 '그렇다'라고 답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정부 목표 상향 및 제도/지원 강화 필요성

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조달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관련 제도 및 지원이 강화되고 공급 목표가 상향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응답 기업의 대다수인 86% 기업들이 '그렇다'라고 답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6. 결론

그린피스가 국내 주요 10대 그룹 1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는 우리나라 대표 그룹들의 기후위기 대응 리더십 현주소를 보여주었다. 10개 그룹 중 절반 이상인 6개 그룹이 최하점인 F를 받았으며, SK, 삼성 등 일부 그룹에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는 했으나 글로벌 기업들의 목표 연도나 이행계획 수준을 고려했을 때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국내 10대 그룹 100개사 중 고작 25개 기업만이 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연도를 특정했으며, 이들의 평균 목표 연도는 2048년으로 집계되었다. 전 세계 RE100에 가입한 기업 300여 곳의 평균 이행 연도인 2028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20년이나 늦은 수치다. 제너럴모터스의 경우 2016년에 RE100에 가입할 당시 2050년을 목표로 수립했으나, 현재 목표시점을 15년 당겨 2035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 주요 기업들은 자체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넘어 협력사에까지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 국내 10대 그룹의 기후 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은 상당히 뒤쳐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간 국내 기업 다수는 RE 시장 환경과 제도의 미흡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기 어렵다고 토로해왔다. 그러나 상황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올해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을 위한 여러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했고, 기업과 그린피스를 비롯한 시민사회에서 수년간 노력한 끝에 전기사업법 개정안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기업을 포함한 전력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을

직접 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기업이 기후위기 대응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발판이 마련되어, 더는 '제도가 없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기 어렵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기후위기 시대에 기업의 책임과 역할은 분명하다. 기업은 국내 전력사용량의 절반 이상(55%)을 사용하며, 2000만 가구 전체가 사용하는 전력량보다 약 4배 가까이 많은 양을 사용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발생시키는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는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그로 인한 피해는 현 세대는 물론이고 미래 세대에까지 전가된다. 국내 주요 그룹과 총수들은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가장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인 RE100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기후위기로 인해 재편되는 세계 질서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업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기 위한 중단기 이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기후 대응을 무역정책과 신속하게 연계하기 시작하면서, 탄소배출을 줄이지 않을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막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활동 중 탄소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전력 사용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됐다. 매우 더딘 속도로 진행되는 국내 주요 그룹의 재생에너지 전환 추세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업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 중단기 로드맵을 세우는 것과 동시에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투자자들과 소비자들은 특정 기업의 활동이 기후위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권리가 있고, 기업은 그러한 정보를 제공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 단순히 몇 년까지 RE100을 이행하겠다는 수준을 넘어, 기업에서 소비하는 전력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재생에너지 100% 전환 목표 연도에 맞춘 연도별 재생에너지 조달 방안과 비율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국내 10대 그룹 100개 계열사가 전체 가구보다 많은 전력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에너지 소비가 기업에 쏠려있는 상황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대규모 전기 수요자인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확대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재생에너지 누적 설치량이 늘어나고 내수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국내에서도 해외에서와 같이 학습곡선에 의해 재생에너지 기술과 경제성이 향상될 것이고, 이는 다시 더 빠르고 더 큰 규모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끌게 된다.

한편,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정부는 기업이 전력을 재생가능에너지로 100% 조달할 수 있도록 국가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하고 관련 제도와 지원 정책을 정비 및 강화해야 한다. 재생가능에너지 설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시장 구조와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에너지믹스를 빠르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문제는 일개 부처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현 정부뿐만 아니라 내년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대선 주자들 역시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 비전을 보여주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에 큰 영향을 끼치는 기후 문제에 적극 대응할 역량을 갖추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GREENPEACE

그린피스는 전세계 환경문제와 그 원인들을 밝혀내기 위해 비폭력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응하는 국제환경단체입니다. 그린피스는 환경파괴 현장을 목도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합니다. 활동의 독립성을 위해 정부나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으며, 개인 후원자와 독립재단의 기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971년 캐나다에서 핵실험 반대 운동을 시작으로 창설된 그린피스는 한국을 포함, 전세계 55개국에 지부 및 사무소를 두고 기후 에너지와 해양 보호, 삼림 보호, 유해물질 제거, 지속가능한 농업, 북극 보호 등의 캠페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57, 청룡빌딩 6층
T. +82. 2. 3144. 1994
F. +82. 2. 6455. 1995
www.greenpeace.org/korea
문의: enquiry.kr@greenpeace.org



기후미디어허브

기후미디어허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조직입니다. 국내는 물론 전 세계 다수의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합니다. 국내외 언론 보도, 캠페인 전략 설계 등 다양한 방식의 전략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변화에 필요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증폭시킵니다.

www.climatemediahub.com/
문의: contact@climatemediahub.com